

왕초보를 위한 사진 촬영 기초강좌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테크닉'

세상에는 사진만으로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 사진에서 차지하는 구도는 사진 제작에서 본질적인 것이며 매우 중요성을 갖는다. 구도의 본질은 구성이고 그 목적은 주제를 강조하고 시각적으로 가장 유효적절하게 나타내려는 것이다. 좋은 구도는 눈을 즐겁게 하면서 관심을 끄는 한편 시각적으로 잘 표현된 사진은 단순한 사물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이다. 사진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구도까지 공부했으니 이제는 왕초보에서 '왕' 자를 떼어내고 초보 사진가로서 세상의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휘해보자. <편집자 주>

•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자신이 갖고 있는 카메라의 사용법을 완전히 익힌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초점, 적절한 노출, 그리고 안정적인 구도는 좋은 사진의 일차적 충족요건이다.

두 번째, 상황에 따른 사진의 기초적인 테크닉을 알아둔다. 사진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를 살릴 것인지, 또는 어느 부분에 노출을 맞출 것인지, 작가의 의도가 잘 표현되었는지, 보여지는 것 이외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등. 어떤 작가들은 의도적으로 아웃포커스를 사용해 주제를 흐려놓는다. 방관자적인 시각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 번째, 절제된 화면의 배치를 위해 선이나, 면 등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자.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방법 중엔 초점이나 적절한 노출 외에도 구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주제를 돋보이게 강조하고 주제를 더욱 빛나게 해줄 부주제를 찾자. 주 피사체의 부각을 위해 불필요한 요소들은 과감히 삭제하자. 단순하고 간결한 배경을 선택하자. 좋은 사진을 보며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술로 찍은 건지 추론해본다.

네 번째, 항상 카메라를 휴대하라. 일상을 스케치하듯 관찰하고 촬영한다. 그것이 작품이 될지는 나중에 알게 된다. 사진을 찍는 이유는 내 안에 내재된 기억들을 돌아보기 위함이다. '사진은 혼자만의 사색이다'. 작가의 감정과, 사상과, 영혼까지도 사진에 담아라. '사진은 감정의 울림이다'. 당신의 감정이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진이 아닐 수도 있다. 감정, 표정, 빛, 색깔, 공기, 냄새, 소리 등 이 모든 것들이 반응해 당신의 사진을 찍게 한다.

• 피사체에 따른 촬영

구도란?

느끼고, 보고, 표현하고 싶은 것을 그때마다 어떤 앵글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프레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이다. 기본 구도를 따라하려는 생각보다 기본 구도를 인지하면서 독창적인 사진을 만들어 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사진 속에 등장하는 소재들 간의 배치와 소재들 간의 연결성이 가지는 일정한 시선의 흐름 등의 원하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 포괄적으로 얼마나 잘 구성 하였는가를 사진가가 결정하는 것이다. 사진을 처음 대하는 순간 보여주고자 하는 제 1주제에 감상자의 시선이 머물게 하고, 그 다음 제 2의 부제로 시선을 옮겨가게 유도할 수 있다면 좋은 구도 및 좋은 구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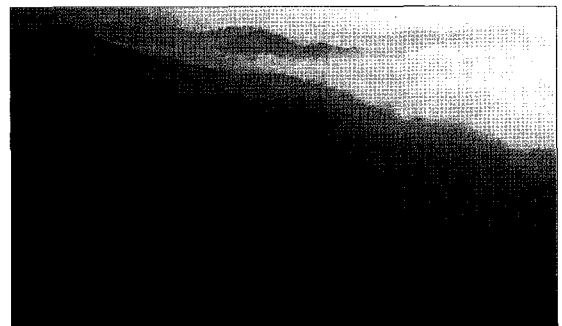
1. 풍경사진에 원근감을 표현하자.

자연 풍경은 자연의 웅장한 스케일, 신비로움, 유구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사진, 산·들·하천·계곡·바다·해안 등의 경관, 4계절의 독특한 정서, 자연현상의 변화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여행을 가면 풍경사진을 많이 촬영하게 된다. 그것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멋진 장면이기도 하지만, 여행후의 즐거움을 이 풍경사진을 보는데서 다시 한 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행 후 사진에서는 여행지에서의 감동을 느낄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은 우리 눈은 둘이라서(사람의 눈은 입체적으로 본다.) 원근감을 느끼면서 보았는데, 사진은 평면이라 눈으로 본 것과 같은 감동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행지의 감동을 충분히 느끼려면 사진에 '원근감' 이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풍경사진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촬영하지 말고, 근경(가까운 경치), 중경(중간경치), 원경(멀리 있는 경치)의 삼박자가 일치되게 촬영하면 좋은 풍경사진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의 설악산 풍경의 꼭 사진 윗부분에 단풍나무가 한그루 지나가는 사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근경' 이다. 최소한 근경이 있어야 풍경사진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나 근경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화면 안을 가로 지나는 선들이(수평선이나 수직선) 많으면 사진이 산만해진다. 삼분할 원칙을 적용해 복잡한 선을 줄여 나가자. 풍경사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광각렌즈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망원을 이용해 일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행지에 가면 그 지방의 명승지를 찍은 엽서나 기념품들이 있을 것이다. 먼저 이것들을 살펴봐서 좋은 포인트를 알아내는 것도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제1-1. 근경표현



예제1-2. 원근감이 잘 나타난 풍경

2. 인물사진은 얼짱각도를 알고 찍자.

사진계에 전해지는 옛날이야기가 있다. 오른쪽 눈이 애크눈인 왕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애크눈왕의 모습을 그리라는 명이 떨어졌다. 그런데, 보이는 모습 그대로 그린 화가들은 모두 처형되었고, 단 한 명의 화가는 살아서 상을 받았다. 그 화가가 살아남은 이유가 궁금해질 것이다. 그 화가는 정상적인 왕의 왼쪽 옆모습을 그렸던 것이다. 모델에 대한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배려 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 주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인물사진을 찍을 때 멋지고 날씬한 사진을 원한다면 45도 각도를 시도해 보자. 얼짱각도로 찍을 때처럼 얼굴의 턱을 안으로 당기면서 왼쪽얼굴이 더 많이 보이도록 연출해보자. 얼굴 또는 몸이 카메라를 바라볼 때 정면에 위치하면 가장 살쥘 보이므로 약간 측면으로 몸을 돌린 후 찍는다면 확실하게 날씬해진 몸매와 얼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물을 촬영할 때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야 하나?

촬영대상이 가까이 있건 멀리에 있건 인물 촬영은 거리에 관계없이 눈에 초점을 맞추고 촬영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진에서 눈이 살아 있어야 인물 전체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동물이나 곤충도 눈에 초점을 맞춘다. 셔터버튼을 반 누르기한 상태에서 촬영 대상의 눈에 초점을 맞추고 촬영자가 원하는 구도를 잡은 뒤 완전히 셔터를 눌러 찍는다. 인물사진이든, 꽃 사진이든, 역시 피사체를 정 가운데 두지 않고 황금 분할선에 위치하도록 하고 바라보는 시선 쪽에 여백을 주는 것이 안정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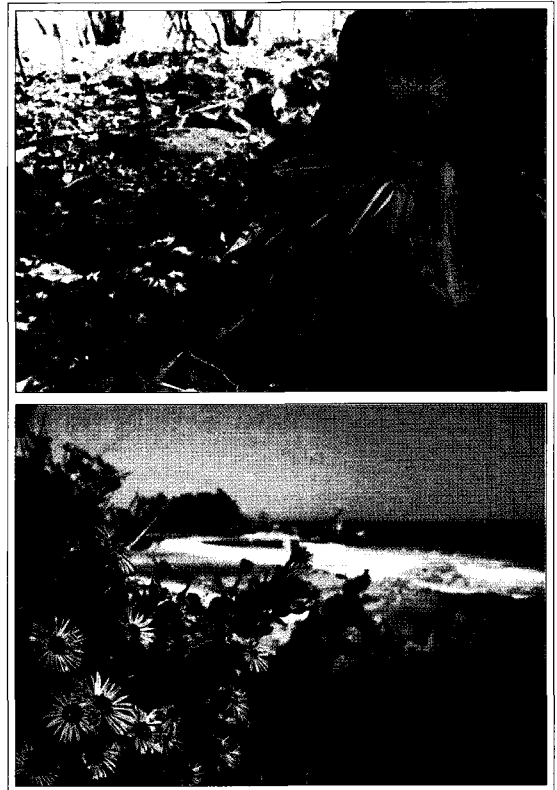
예제2. 45도 각도의 인물 사진

3. 꽃 사진도 얼짱각도가 있다. 특히 확산광을 이용하자.

꽃 사진의 가장 큰 매력은 한 가지 꽃으로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접사로도 담을 수 있고, 빛을 활용해서 담을 수도 있고, 풍경과 함께 좀 더 멀리서 잎의 선을 살려 동양화처럼 여백과 함께 담아도 예쁘기만 하다.

야생에서 만날 수 있는 빛은 참 종류가 많은 것 같다. 강한 빛, 따가운 빛, 순한 빛, 마주 보는 빛, 어두운 빛... 사진 담는 사람마다 특별히 좋아하는 빛은 있을 것 같다. 짜증내며 그 빛을 기다리기보다 즐기는 꽃 사진으로 지금 주어진 빛을 이용하자.

(1)꽃사진에서 난반사(화이트 홀)를 죽여보자 : 이른 봄 정오쯤 머리 위에서 비추는 직사광(Top light)으로 꽃을 담으면 흰색 꽃잎의 질감이 표현되지 않고 하얗게 표현됨을 경험 했을 것이다. 강한 빛으로 생긴 현상으로 빛을 약하게 만들어 주면 된다. 구름아래 확산광이나 비 내리는 날씨가 꽃색을 표현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빛 같다. 검색창에 '미나리아재비'로 검색해서 사진을 보면 대부분 '뽐뽐 뽐뽐' 빛나는 사진을 볼 수 있다. 제 아무리 좋은 디카를 구비하고 기술적 테크닉이 좋다 해도 강한 빛 아래서는 피사체 고유의 색감과 질감을 표현하기에는 아주 힘겨운 것 같다. 꽃의 자연스런 색과 질감을 실감나게 표현하려면 맑은날을 피하고 구름아래 확산광을 이용하거나 이른 아침에 꽃사진을 담아 보자. 햇살이 짙은 날은 우산을 펼치거나 외투를 벗어서 나뭇가지에 걸쳐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제3. 다양하게 연출된 꽃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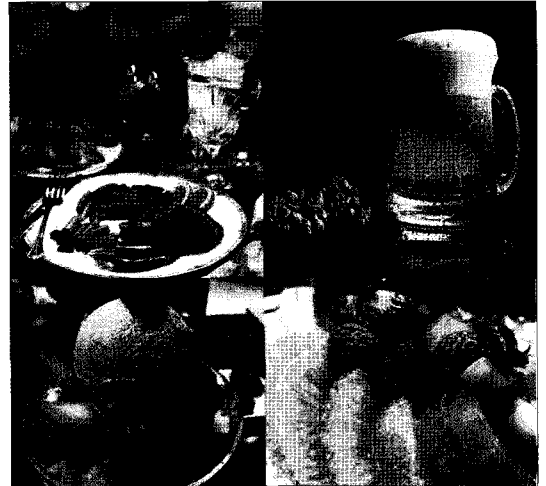
(2)숲의 그늘을 이용해 보자 : 날씨가 짙은 날도 숲의 그늘을 이용하면 확산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흐린 날이나 비오는 날은 셔터스피드가 많이 떨어지므로 디카가 허용하는 최대 ISO를 적절히 활용해서 셔터스피드를 꼭 확보 하자. 빛을 감소시킬 수 있는 PL이나 CPL필터를 가지고 있다면 필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3)분위기 있는 꽃사진을 위해 역광을 활용해보자 : 할미꽃이나, 노루귀는 뒤편이 희미해도 역광에서 솟털 뽐송한 모습이 예쁜 것 같다. 노루귀를 아침이슬 버전이나, 솟털버전으로 약한 빛을 역광으로 잘 활용하면 더 그럴싸한 예술적인 꽃사진을 만들어준다. 아주 강한 역광에서는 배경이 날아가 버려 자칫 죽은 배경을 만들기 쉬우니 주의해서 담아 보도록 하자. 입체감이 있는 역광으로 찍은 사진은 그림자가 생긴다. 반사판이나 플래시를 이용해서 역광의 빛과 암부를 동시에 살릴 수 있다면 더 멋진 꽃사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달걀 프라이(개망초 같이 노란수술이 있는 흰꽃을 정가운데 찍어놓은 접사사진) 원구도는 생태사진이 아니면 삼가도록 하자. 꽃이 죽으면 영정으로 사용할 것도 아닌데 항상 증명사진처럼 꽃만 정 가운데다 두고 접사로만 담는 사람이 있는데 감상하기에 별로 감흥이 일지 않는다.

(4)야생화등 생태사진은 주변을 돌아보고 환경도 함께 담아보도록 하자 : 꽃을 주제로 하고, 환경이나 꽃의 근락진 무리를 배경으로 해서 부주제로 아웃포커싱 기법으로 사진을 찍어보자. 주제인 꽃은 선명하게, 부주제인 근락지의 꽃은 흐릿한 영상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시선을 유도할 수 있다. 주제와 부제의 간격이 멀수록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가령, 주제로 보라색 얼레지꽃을 두어 주제의 꽃이 돋보이도록 하고 부주제로 흰색의 꿩의바람꽃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담으면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꽃의 다양함을 나타내주어 꽃의 생태를 알 수 있다. 광각렌즈로 적당한 조리개 값을 주어 부주제가 너무 흐려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4. 음식 사진도 얼짱 각도가 있다.

요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클로즈업하는 것과 그릇의 일부뿐만 나오게 하는 것, 45도 각도 위에서 촬영을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요리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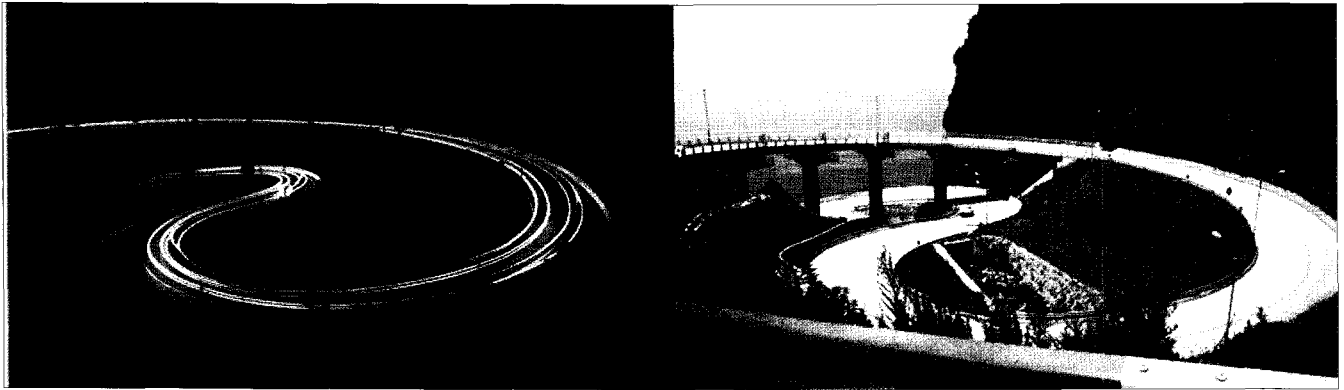
예제4. 음식사진의 표현

얼짱 각도이다. 스테이크라면 고기의 구워진 면을 강조한다든가, 비빔밥 위의 색색 고명을 강조하는 것, 스파게티의 면발을 포크에 감아 살짝 들고 찍는 것 등이 요리의 개성을 살리는 길이다. 찌개나 기타 김이 나는 요리를 할 경우 서터속도를 늦게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김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듯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상업적으로 쓰일 때는 인위적으로 찌개 안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어 김이 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고기 같은 경우는 윤활제 같은 특수 물질이나, 매니큐어를 이용하기도 한다. 고기가 살아 있는 듯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음식은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된다. 우리는 식용유를 바르고 연습해보자. 특수 장비가 없을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촬영하기도 한다. 맥주 사진 같은 경우 맥주 안에 소금을 넣어 맥주거품을 많이 내서 흘러내리게 하기도하고, 맥주 컵에 침으로 맥주거품이 넘칠 때 길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원하는 곳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스프레이로 야채에 이슬을 맺히게 하기도 하고, 손으로 일일이 요리의 위치를 바꾸는 등 많은 공을 들인다. 디카에 따라서는 광각상태에서 접사기능이 이루어지는 모델도 있지만 광각은 음식의 모양을 왜곡시키니 망원쪽의 접사를 이용하는 게 좋다. 혹시 요리 자체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직접 만든 요리를 촬영하고 싶으리라. 그럴 땐 책상위의 삼파장 스탠드가 훌륭한 조명역할을 할 수 있다. 실내의 불을 모두 끄고 스탠드 조명을 음식에 비추면 스튜디오 부럽지 않은 빛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디카의 플래시는 발광금지 상태로 놓아야 한다. 보통의 디카 들은 노출과 포커스가 자동으로 조절된다. 처음 시작한 이들에겐 무척 편리하고 최적의 촬영환경을 만들어 주지만 어쩐지 카메라가 제공해주는 사진 같아 정이 안가는 면도 있다.

(1)화이트밸런스를 달리해보자 : 화이트밸런스를 자동 모드에 놓으면 어느 정도 보정이 되지만 수동으로 하나씩 조절해보자.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식욕을 돋우기 위해 형광등보다는 약간 붉은 기가 도는 할로겐 조명을 많이 사용한다. 형광등과 같이 푸른빛이 도는 음식은 오히려 식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차라리 은은한 노란색 계통이 요리사진에는 더 적합하다. 요리 사진은 옷이나 액세서리와 달리 자연광에서 제일 예쁘게 나온다. 오전 10시~2시 사이가 가장 적당하네 빵 종류나 튀김 종류는 우드 도마 같은 나무걸 + 식힘망 같은 스텐 용품들 + 키친타올 등과 세팅하면 훨씬 가정적이고 푸근하고 먹고 싶은 비주얼을 만들 수 있다. 자연광 촬영에서 주의할 점은 직사광선에 내려놓고 찍으면 안되고 환한 창가에 놓되 그늘진 곳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환하고 밝고 은은한~ 화사한 음식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베이지, 브라운 톤이 강한 튀김 음식이나 빵 음식은 거실 백열등으로도 레스토랑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백열등이 천장 높이 달려 있고 빛의 양도 적기 때문에 보조 조명이 필요하다. 백열등 스탠드라도 근처에 켜 놓고, 화이트밸런스를 조정하자. 세팅된 조명 환경 아래에서 하얀 도화지나 하얀 천을 깔고 화이트밸런스 조정 샷을 누르면 그때부터 그 색이 하얀색이 된다. 식재료들의 본래 색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조리개를 열고 '아웃포커싱'을 하면 분위기 있고 그윽한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풍요로운 느낌을 주려면 '여백의 미' 보다는 여러 가지 소품과 패브릭 등으로 꽉 채워준다.

##### 5. 야경 촬영에 도전해보자.

삼각대는 필히 준비하자. 사진의 선명함을 위해 조리개를 조이고 촬영할 일이 많을 텐데 흔들림 없이 찍으려면 튼튼한 삼각대는 필수다. 서터스피드가 느려지면 서터를 누르는 작은 힘에도 사진이 흔들린다. DSLR 렌즈교환식 수동 카메라에선 릴리즈(유선릴리즈와 편리한 무선릴리즈가 있다.)를 사용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똑딱이 디카엔 케이블릴리즈소켓이 지원되지 않으니 셀프타이머를 사용하여 충격을 줄여보자. 사람의 눈은 1초당 24회 정도의 순간을 기억한다고 한다. 영화의 프레임은 인간의 이런 식별력을 응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초당 24개의 화면이 연속으로 돌아가면서 정지동작이 연속동작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디지털카메라의 장시간 노출이다. 디카로 1초 이상의 노출을 주면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흘러가면서 한 화면에 잡힌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자동차의 "빛의 궤적" 현상이나 바위에 부서지는 폭포의 물줄기 등은 이미 현실을 떠나 초현실로 다가온다. 이 모두 삼각대가 없다면 촬영이 불가능하다. 이렇듯 중요한 삼각대를 이용하여 야경사진에 도전해 보자. 해마다 연말이면 신문마다 야경사진이 실리곤 한다. 거리마다 화려한 불빛의 분



예제5. 궤적

위기와 일년간 지나간 궤적도 표현하자니 야경만한 소재가 없으리라. 먼저 시간대는 초저녁이 좋다. 해가 지고 난 후 30분 이내가 멋진 하늘색과 도시의 불빛들이 가장 잘 살아나는 시간대이다. 하늘을 같이 구성하기 위해서는 광각렌즈로 설정해야겠고 삼각대를 사용해 조리개를 f8.0 이상으로 조인 후 셔터스피드를 1초 이상으로 놓으면 지나가는 자동차의 불빛이 흘러가면서 도시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준다. 그 이후의 야경촬영이라면 차라리 까만 하늘을 앵글에서 빼버리고 도시의 불빛에 전념하는 게 좋다. 비가 온 후의 야경은 더 환상적이다. 빗물이 고인 곳에 도시의 네온사인을 걸쳐서 촬영하면 평범한 눈높이의 사진에서 볼 수 없는 극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으니 해가 졌다고 카메라를 가방 안에 모셔두지 말자. 이끼계곡이나 폭포의 물줄기를 흐르듯이 표현하고 싶을 때, 4초 이상 셔터속도가 확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ND 필터(중성농도 필터라고하며 색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빛의 투과량을 줄여준다)를 사용하면 셔터속도를 더 늘릴 수 있어 원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작가의 의도대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다양하게 나와 있는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라 할 수 있겠다. 필름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PL, 편광필터(DSLR은 PL필터의 단점을 보완한 CPL필터를 쓴다.)는 하늘의 색깔을 더욱 푸르게 해주고 유리창 등의 난반사를 없애주지만 이 역시 디카에 부착하기는 힘들다. 촬영 후 포토샵 같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서 콘트라스트 조절 등 리터칭을 하는 것으로 보완하면 아쉬우나마 편광필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제6. 불꽃놀이 광경

(1)수동 모드로 색다른 느낌을 경험해보자.

SLR 수동 모드에는 Bulb 기능이 있다. 일명 B셔터라고 하여 내 맘대로 셔터속도를 주면서 다중촬영도 가능한 기능이다. 야경 불빛의 갈라짐이나, 불꽃놀이를 촬영할 때 꼭 필요한 기능이다. 초점과 적절한 노출로 선명한 포커스는 자동 모드에서도 가능한 일이니 특별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의 흔들림을 꺼린다. 좋은 사진의 1차적 기준은 물론 선명한 사진이다. 하지만 의외로 흔들린 사진에서 색다른 느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색다른 느낌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진을 배우는 이유가 될 것이다. 흔들림이 돋보이는 순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물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특히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코스모스, 갈대, 억새, 보리밭 등을 주제로 저속의 셔터속도를 주어 설명 필요 없이 사진으로 바람을 표현해보자. 디카의 모드를 수동으로 설정하면 분명 불편하고 처음에는 시간도 많이 걸린다.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나면 자동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사진의 세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패닝(panning)기법

경마장에 가서 질주하는 말들을 촬영한다고 해보자. 1,000분의 1초 정도의 셔터 스피드면 빠른 속도로 달리는 말들을 얼어붙은 듯이 찍을 수 있다. 반면에 60분의 1초 정도의 셔터 스피드로 달리는 말을 촬영한다고 보면 집중팔구는 흔들려서 못 쓰는 사진이 되고 만다.



예제7. 움직임이 강조된 패닝 표현

자, 여기에 비결이 있다. 사진 촬영하듯이 찍지 말고 비디오 촬영하듯이 찍는 것, 카메라를 말의 질주방향으로 같이 따라가며 60분의 1초의 슬로 셔터를 누르는 것이다. 특징적인 효과는 피사체와 배경이 마치 분리되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며 동체의 화면은 정지되고 배경은 속도감 있게 흐르는 모습이 인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 촬영지점에 초점을 미리 맞추어 둔다. 따라서 af보다는 mf로 고정시켜 두는 것이 좋다. 파인더를 통해 피사체를 주시하며 촬영지점에 도달했을 때 피사체와 같은 속도감으로 카메라를 움직이며 촬영한다. 이러한 조건일 때 조리개를 조이고 동체의 이동방향으로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느린 셔터속도(1/15~1/60초정도)로 촬영하면 움직이는 피사체는 고정되고 배경은 흘러가는 것처럼 나타나 힘찬 블러효과를 볼 수 있다. 아마 말의 몸통에 포커스가 맞고 바쁘게 움직이는 다리와 배경은 흔들리는, 움직임이 강조된 사진이 나올 것이다. 이 같은 사진기법을 패닝(panning)이라 한다. 사진가의 주관이 너무 강하게 배어 있어 기록의 의미보다 스포츠 이미지 사진에 많이 이용된다.

흔들림을 이용한 또 다른 사진으로 카메라를 고정시킨 채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 가며 슬로우 셔터로 촬영하는 것이 있다. 셔터 스피드는 15분의 1초, 혹은 그 이하로 놓자. 물론 셔터 스피드가 내려감으로 인해 조리개는 더 조여 줘야 적절한 노출을 얻을 수 있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나, 인라인스케이팅 [inline skating], 롤러블레이드를 즐기는 사람들을 담아보면 좋은 예제가 될 것이다. 자전거가 튀는 색감(빨강이나 노랑색)을 지니고 초록의 풀밭이나, 여러 가지 컬러를 가진 배경이라면 색감 대비가 더욱 좋은 사진으로 표현될 것이다. 인라인은 잘 나타나지 않으니 의상이 화려한 대상자를 기다리자.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이왕이면 색감 대비를 맞춰 보여주고자 하는 제1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강조하자. 피사체와 거리가 가깝고 동체가 렌즈에 대해 직각이며, 배경이 다양하고 변화가 많을수록 좋다.

### (3)틸팅 촬영기법

패닝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는데 다른 점은 카메라의 방향이 좌 → 위에서 위 → 아래로 바뀌는 게 다르다. 대표적인 촬영케이스는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피사체를 찍는 방법이 있다. 위에서 아래로 카메라 파인더를 움직여야 하며 주의점이나 효과 등은 패닝 촬영과 비슷하다. 상황에 맞게 볼 헤드를 장착한 삼각대 등을 사용하면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다.

### (4)주밍 (Zooming)기법

주밍 촬영은 줌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로 할 수 있는데 촬영하는 순간 렌즈를 돌려 줌을 구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화면상에 동심원이 생기고 가운데 피사체를 두는 구도가 가장 많다. 피사체 주변으로 왜곡이 생기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밍은 슬로우 셔터로 노광 중에 줌 렌즈의 초점거리를 이동시키면 화면 중심부에서 주변으로 화상이 방사형으로 흐려져 동적인 표현이나 특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적 낮은 셔터스피드를 이용하여 촬영과 동시에 렌즈의 줌 링을 축소 시킴으로서 생기는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다. 주밍 사진을 찍을 때, 그 구성이 무엇이든 간에 시작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렌즈가 허락하는 줌의 가장 넓은 화각으로 프레임의 우선 구성한 뒤에 초점거리가 가장 긴 쪽으로 주밍하는 것이다. 예컨대 18mm~55mm표준 줌일때 18mm 광각으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줌링을 55mm까지, 주밍하는 것으로 시작해본다. 처음에 했던 몇 번의 시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말라. 곧 모든 주밍 사진을 성공적으로 찍는 데 요구되는 리듬을 배울 것이다. 렌즈를 돌려서 밀고



예제8. 주밍 표현

당기며 피사체를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기법은 1/20이하의 셔터스피드에서 효과적이며, 재빠르게 줌링을 조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1/6, 1/8에서 촬영해도 된다. 또한 줌링시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삼각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촬영과 동시에 줌링을 조절해야 하므로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동아리 촬영을 나갔을 때 빛이 적어 사진적 느낌이 부족할 때나, 친구들과 무로할 때, 재미있게 한 번쯤 시도해볼만하다.

(5) 셔터속도로 엣지(edge)있는 사진을 만들자.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 했지만 셔터속도를 알면 나만의 개성 있고 “엣지(edge)”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1/60초부터 1초 이상의 느린 셔터속도로 찍으면 상쾌한 생명력을 드러낼 수 있다. 야생화가 핀 들판에 불어오는 바람 표현하기, 폭포나 시냇물에 솜사탕 효과 만들기, 스웨터를 뜨고 있는 손을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호수에서 나와 물을 털어내며 말리는 개 표현하기, 8초 이상의 느린 셔터속도를 이용한 유명 사진 만들기 등, 놀랍도록 다양하고 창조적인 사진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도와준다.

사진 촬영 행위는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가 없으면 응용을 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된다. 사진에 관련된 책을 한 권 남들보다 더 읽었다고 금방 남들보다 사진을 더 잘 찍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사진이론과 카메라의 매뉴얼을 숙지해서 기초가 튼튼하다면 책을 읽지 않고 기초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응용능력과 표현능력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지론은 사진은 아는 만큼만 찍힌다는 것이다. 풍경사진, 인물사진, 혹은 스포츠 사진, 꽃 사진 등, 모든 사진의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는 촬영하는 사람이 아는 만큼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좋은 사진은 좋은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와 닿는 아름다움을 가진 사진을 말한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사진은 황금비율로 계산되어 의도된 모습으로 구도를 만들고 촬영된 사진이 아니라, 작가와 모델 그리고 보는 사람이 공감하는 사진이다. 내 마음에 들어 나만을 만족시키면 되는 순수사진을 촬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사진의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촬영할 것인지 고민하자. 어떻게 그 피사체를 바라보아야 아름다운지 고민하는 것이 좋은 사진을 촬영하는 기본이다. 내가 피사체에 대해 알고 공감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다른 사람이 촬영할 때 옆에서 기웃거리며 찍은 사진은 차이가 많다. 하찮은 잡초라 할지라도 사진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 귀한 것들이 많다. 야생화를 담으러 산에 가보면 인위적으로 사진적인 환경을 만들려 꽃을 꺾는 몰지각한 진사들을 간혹 보곤 한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모델 촬영을 가거든 깎듯이 그들을 예우해야 한다. 겨울에도 기꺼이 옷을 벗어주는 프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따뜻한 커피라도 건네고 싶 때는 옷이라도 기꺼이 빌려주자. 피사체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사진작가이다. 수없이 많은 연습샷을 날리면서 좌절감과 시련을 겪고나면 비로소 조리개와 셔터속도의 감이 오고, 개성 있는 노출을 만들어내면서 나만의 색깔을 찾게 되는 것이다. 많은 노력과 숙련과 애정과 경험만이 사진을 빛으로 그린다.



예제9. 흔들림 사진 표현



윤정인

생명의 숲 활동가로서 건강한 숲 가꾸기와 자연사랑에 나무와 들꽃들을 하나씩 기록하다가 자치구의 문화원과 애니메이션고 평생 학습사진반 교육을 수료했다. 현재 남양주시 숲가꿈이 생태해설사로 있으면서 길동 생태공원해설사들의 사진기초교육과 구리시 교문동 컴퓨터동아리 사

진기초교육, 남양주시 자치센터 디카사진&포토샵 사진보정교육 등을 담당하며 사진과 함께 아름다운 50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부이기도 하다. 또한 남편과 함께 사진여행을 하며 2년 뒤 남편의 ‘회갑집’을 계획하고 있다.